



하다. 法衣는 通肩하였고 두 손은 通印을 나타냈으며 結跏趺座한 무릎이 比較的 넓다. 臺座는 表示된 바 없다.

一見하여 本像이 그다지 優秀한 作品이 아님은 곧 짐작되며 그 造成도 羅末麗初로 생각되어 彫刻自體로서는 그다지 注目될 바 못되나 머지않은 곳에 統初 新羅의 三尊佛이 있으며 安東, 榮州, 醴泉 等地에 優秀한 佛敎遺蹟들이 남아 있음을 보아 이러한 佛敎的인 遺品은 그 位置로 보아 看過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休川里 磨崖佛은 西面하여 可與里 磨崖佛과 相對하였고 岩石 위에는 조고마한 庵子를 經營할만한 자리가 있으니 新羅時代부터 高麗時代에 걸쳐 流行하던 磨崖彫刻佛의 一例라고 할 수 있다. 이 佛像을 모시던 寺刹이 어느 때 建立인지는 알 수 없으나 榮州 東部國民學校 校庭의 거의 同代로 보여지는 石佛坐像이나 榮州驛前 布敎堂內에 羅代의 遺物인 石燈 石塔 等的 殘缺 或은 九世紀의 造成으로 보여지는 彫刻이 優秀한 石佛坐像(頭部가 缺失되었음은 매우 아깝다) 등이 있어 榮州地方의 佛敎的 遺蹟이 注目되어야 할 것이다.

佛高 七三 cm 膝 六五 cm

岩石中の 하나를 택하여 조고마한 坐像이 彫刻되었다. 岩石은 高約一六〇 cm 幅約七〇 cm 로 若干위로 치우쳐서 如來像이 彫刻되었는데 顔面은 圓에 가깝고 두 볼은 살이 찢고 其他細部가 그다지 明瞭하지는 못

正統元年銘

銅鐸

鄭永鎬

梁山 通度寺 寶物藏 안에 小鐘이 二個 保存 되어 있다. 靑銅製로서 二口가 大小의 差는 若干(各部에서 約〇・五 cm) 있으나 各部의 樣式과 形態는 同一하며 同時에 鑄造된 것으로 推測된다. 二口中 其一에는 點線으로 銘文이 있으며 若干 큰편이기에 此品을 紹介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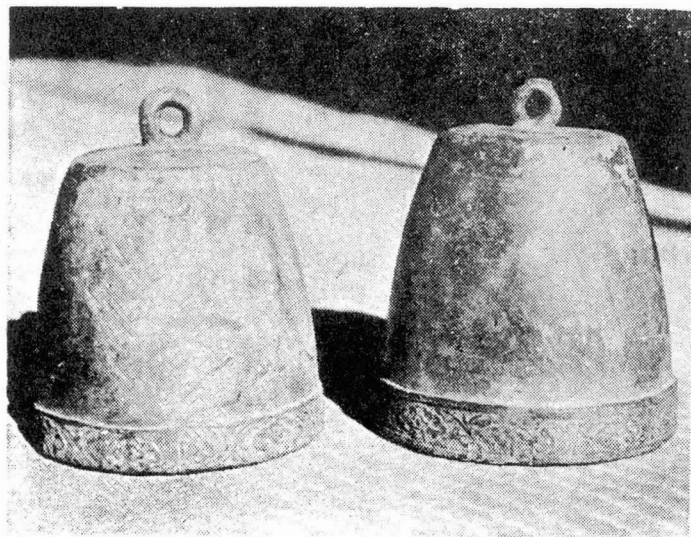
總高 一四・五 cm

上徑 七・五 cm 下徑

一・二・八 cm 의 小品

으로 特히 鍾體에 보이는 銘文이 注目되었다. 頂上에는 徑二・三 cm 의 圓形鈕가 달려있고 「하」트[形의 小孔이 있다. 彫鏤는 下帶(幅二・三 cm)에만 있는데 上端에 細線을 周圍하고 唐草紋을 陽刻하였는데 寫實的이며 彫飾은 刻明하다.

內頂中央에는 頂鈕의 고리와 같이 圓形舌環이 下向하였



는바 그의附屬物은 없다. 以上の形態로 이루어 보아 建物の隅棟下端에 달렸던 風鐸으로推測되었다. 鍾體의 點線銘文은 楷書로서 縱書되었는데 다음과 같이判讀되었다. 「正統元年丙辰六月日李令□□宋文」 다음에數行施主名이 있으나判讀하기 困難하다. 「正統元年丙辰」은 明의 英宗代 李朝 世宗 十八年(西紀一四三六年)에 該當된다. 이 遺物은 오래前부터 同寺에 遺傳되어 온다는바 그 出處等은 未詳이다. 鍾體에 靑綠鏽가 보이나 保存은 完全하다.

南大門上樑文

申 榮 勳

(一) 一層中道里 앞 침 길 墨書

長二四尺 高七寸 幅三·五寸 一本

洪武貳拾玖年丙子十月初六日

判事嘉靖大夫中樞院使崔 有慶

正憲大夫全羅道都觀察黜陟使李 茂

推忠翊戴開國功臣資憲大夫完山府尹孫 興宗

副判事前嘉善大夫開城府尹李 之浩

前嘉善大夫戶曹典書石 崇

使前中直大夫司僕卿尹 乙休 副使 前司僕少卿景 廉 判官 前中郎將張

仁哲

前中直大夫司僕卿朴 理 前書雲副正張 璉 前中郎將權 乙奇

司捐司直俞 英俊

前中郎將金 健 前中郎將鄭 壽山

前中郎將崔興國 前中郎將任 富

前中郎將金 渚 前中郎將金 允甫

前郎將庚 敖龜山

常務錄事

都評議錄事前別將孫 興夏

都評議錄事前別將張 籍

別監役前南部令朴 貴生 石手某主

鄭化 □□

富議 □□

金豆彥 □同

王持 □

□賢希

□天湜

□□

(二) 二層宗道里(二重道里下側의 上面) 墨書

長二十四尺 高一·二尺

洪武二十九年丙子十月初六日

以下(一)의 内容과 同一하다

(三) 一層宗道里(二重道里上側의 下面) 墨書

長一四尺 高六寸

正統十三年戊辰三月十七日壬寅巽時立柱上樑

提調正憲大夫議政府左參贊判戶曹事鄭 奉

資憲大夫刑曹判書閔 伸

監役官通訓大夫判繕 以下未詳

啓功郎繕工監直長李 命敏

三軍鎮撫司直李繼蕃 移系天郡事 副司直金副興

申孝原 移文化縣令 司直过大海

別監役□□□□副司直□□□□□□

副司直蔡 均卿 李蔭

鄭 晴 李生

許 雲雨 趙德生

命壽丙四月加方廿